

황중윤(黃中允) 작품의 도가(道家) 수용과 그 의의

김 수 영*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도가 수용의 의의 |
| 2. 도가 수용의 양상 |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황중윤(黃中允, 1577-1648)의 문집인 『동명집(東溟集)』과 한문소설 『천군기(天君紀)』, 『옥황기(玉皇紀)』를 두루 살펴, 황중윤의 작품에서 도가의 수용이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양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먼저 황중윤은 도가서(道家書)인 『장자(莊子)』를 탐독하고 그 어휘와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문학어를 확장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황중윤은 ‘신선(神仙)’ 이미지와 모티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학적 상상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또한 황중윤은 도교 경전인 『황정경(黃庭經)』을 자세히 읽고, 이를 『천군기』 창작 시 원용(援用)했다. 그리하여 성리학적 사유와 도교적 사유를 결합시킴으로써 자신의 소설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발할 수 있었다.

주제어 : 황중윤, 동명집, 도가, 도교, 장자, 황정경, 천군기, 옥황기

*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1. 머리말

황중윤(黃中允, 1577-1648)은 16세기 후반기에서 17세기 전반기까지 살았던 사대부 문인이다. 황중윤은 여러 편의 한문소설을 창작한바 대표작인 『천군기(天君紀)』를 비롯해 『사대기(四代紀)』, 『옥황기(玉皇紀)』, 『달천몽유록(遶川夢遊錄)』이 현전한다. 한편 황중윤의 시문은 19세기 말에야 후손 황면구(黃冕九)에 의해 수집된 뒤 총 8권 5책의 『동명집(東溟集)』으로 엮이어 1905년에 초간되었다.¹⁾ 그 사이 황중윤이 지은 많은 시문이 일실되었으며, 특히 산문의 경우 현전하는 작품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황중윤 문학 연구는 주로 그가 지은 한문소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²⁾ 최근 들어 그의 한시가 주목받고 있다.³⁾

필자는 『『천군기』 연구』에서, 『천군기』의 창작과정에서 도교 경전인 『황정경(黃庭經)』의 수용이 이루어졌음을 밝힌 바 있다.⁴⁾ 『천군기』는 성리학적 심성론을 알레고리를 활용해 서사화한 17세기 ‘천군서사(天君

- 1) 『東溟集』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 영인본은 경인문화사에서 발간한 한국역대문집총서 제303책에 실려 있다.
- 2) 황중윤의 한문소설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동협, 『黃中允 小說研究』, 경북대 박사논문, 1990; 신해진, 『黃中允의 政治的 立場과 『달천몽유록』』, 『국어국문학』 118, 국어국문학회, 1997; 정출현, 『탄금대 전투에 대한 기억과 두 편의 『달천몽유록』』,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김수영, 『『天君紀』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2011; 조안나, 『『사대기(四代紀)』의 표현특질과 주제의식』, 고려대 석사논문, 2014; 김용기, 『황중윤의 『四代紀』에 나타난 현실적 국가관-循環論에 의한 王朝交替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58, 한국어교육학회, 2017; 김용기, 『『옥황기』의 천명과 권선징악에 나타난 작가의식』, 『한국문학과예술』 21,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7; 김수영, 『『天君紀』의 『三國志演義』 援用 양상과 의미』, 『大東漢文學』 57, 대동한문학회, 2018; 홍현성, 『동명(東溟) 황중윤(黃中允) 『사대기(四代紀)』 연구』, 『영주어문』 45, 영주어문학회, 2020.
- 3) 이성형, 『東溟 黃中允의 漢詩 研究-對明 使行詩를 中心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23,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9.
- 4) 김수영, 『『天君紀』研究』, 제IV장 제2절에서 이 점이 밝혀졌다.

敍事)’의 대표작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 도교 경전의 표현과 사상이 의미 있게 수용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가의 수용이 『천군기』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황중윤의 다른 작품은 어떨까? 본고는 이런 물음을 던지고, 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지식인과 문인들의 도가 수용은 조선 전기와 중기, 후기에 여러 양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이 점에서 황중윤의 도가 수용을 밝히는 일은, 17세기 전반기 조선 문인의 도가 수용에 대한 학지(學知)를 넓히는 데 기여하는 의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황중윤의 한시와 한문소설을 아우르며, 그의 작품에서 도가의 수용이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의의는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도가 수용의 양상

1) 『장자(莊子)』의 탐독과 문학어의 확장

황중윤은 도가서(道家書) 가운데 『장자(莊子)』를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 『장자』에서 유래하는 어휘와 표현을 작품 창작 시 활용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기 때문이다. 먼저 『동명집』에 수록된 한시 가운데 『장자』에 출전을 둔 시어가 보이는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홍진(紅塵)에 구속됨을 어찌 견디리	縛束紅塵性豈堪,
송죽 곁에서 한가로이 지내며 뜰에 오솔길을 내네.	閑居松竹逕開三.
우주간 풍류를 닦아 함께할까	風流宇宙間誰併,

5) 이승수, 「조선조 지식인의 莊子 수용과 憤激 의식-三淵 金昌翁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15, 한국도교문화학회, 2001, 313-320쪽; 안세현, 「조선중기 한문산문에서 『장자』 수용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45, 한국한문학회, 2010, 438-446쪽 참조.

계산(溪山)을 읊조리는 것 말고는 말하지 않네.	吟詠溪山外不談
빈방에 흰빛 생겨 도리어 적막한데	生白虛室 還寂寞,
어지러운 책에서 홀로 깊은 뜻 탐구하네.	殺靑書亂獨幽探
세상의 괴안국(槐安國) 나그네 돌아보니	回看世上槐安客,
한바탕 황량몽(黃梁夢)을 달게 여기누나.	一夢黃梁謾自甘. ⁶⁾

『이천장에게 읊어 바치다(吟奉李天章)』라는 시의 전문이다. 제목의 ‘천장(天章)’은 이정귀(李廷龜)의 아들인李明漢(李明漢, 1595-1645)의 자(字)이다. 인용문에서 강조 표시한 제5구의 “生白虛室”은 『장자』에 출전을 둔 시어이다. 『장자』 내편 『인간세』(人間世)에 “저 뚫린 벽을 보면 빈방에 흰빛이 생기고, 길한 징조가 깃들여 있다(瞻彼闕者, 虛室生白, 吉祥止止)”라는 구절이 보인다. 황중윤은 이 구절 중 “虛室生白”을 도치해 시어로 썼다. 이 시는 황중윤이 심경(沈憬) 사건⁷⁾에 연루되어 파직된 후인 1616년~1617년 경, 40세 무렵에 쓴 시이다.⁸⁾ 그래서인지 이 시에는 풍류를 자부하는 시적 화자의 삶과, 풍진 속에서 헛되이 한바탕 황량몽(黃梁夢)을 꾸는 세인들의 삶이 대비되어 그려져 있다. 이처럼 이 시는 『장자』의 일부 구절을 시어로 활용함으로써 탈속적(脫俗的)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다른 예를 보자.

그대 사장(詞章)이 넉넉한 줄 아노니	詞章知子 勿恢恢 ,
명성이 호외(湖外)에 우뢰처럼 퍼졌네.	湖外聲名灌耳雷.
사마시 합격은 거벽(巨擘) 편 것 아니니	司馬榜非伸巨擘,

6) 黃中允, 『東溟集』 권1 『吟奉李天章』. 이하 황중윤의 시 번역은 김정기 외 역, 『국역 동명선생문집 1·2』(한국국학진흥원, 2015)을 참조하되, 필자가 부분적으로 수정해 인용한다.

7) 정인홍(鄭仁弘) 등이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비를 논의한 일을 심경(沈憬)이 대사헌 한찬남(韓贊男)에게 폭로한 사건이다. 황중윤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국문(鞫問)을 받고, 이듬해인 1616년에 파직되었다. 『光海君日記』 광해군 7년(1615) 11월 10일자 기사 참조.

8) 『동명집』은 창작시기 순으로 편집되어 있어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

대붕의 길이라야 웅재(雄才)를 펼치지.	大鵬程可展雄才.
파도 일으키는 고래는 어이 그리 썩썩한지	波濤捲海鱗何壯,
세월이 서리 재촉해 기러기 날아오려 하네.	歲月催霜鴈欲來.
새 시를 문득 보나니 어이 화답할까	忽見新詩那得和,
구정(九鼎) 들기 어려운 능력 참으로 부끄럽네.	深慚九鼎力難擡. ⁹⁾

인용문은 「신 상사(上舍)의 시에 차운하여 효사(孝思)에게 부치다. 2수(次愼上舍韻寄孝思二首)」의 제1수이다. 제목의 ‘신 상사(上舍)’는 신집(愼堧)이라는 인물을 가리키고,¹⁰⁾ ‘효사(孝思)’는 민효사(閔孝思)라는 인물을 가리킨다.¹¹⁾ 이 시는 황중윤이 충청도 서산(瑞山)의 유배지에서 지낸 55세에서 57세 사이에 쓰였다. 먼저 제1구의 “넉넉한(刃恢恢)”은 『장자』 내편 「양생주(養生主)」에 나오는 말이다. 포정(庖丁)의 고사에 보이는 “[그 틈이-인용자] 넉넉하여 칼날을 놀리면 반드시 여지가 있다(恢恢乎其於游刃, 必有餘地矣)”¹²⁾라는 구절 중 “恢恢乎其於游刃”을 압축해 쓴 것이다. 또한 제4구의 “대붕(大鵬)”¹³⁾은 주지하다시피 『장자』 내편 「소요유(逍遙遊)」에 나오는 말이다. 이 시는 『장자』에 보이는 어휘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기는 하나 이 시에 『장자』 「양생주」와 「소요유」에 담긴 도가 사상의 요체가 수용되어 있지는 않으며, 벗의 시재(詩才)를 칭찬함이 이 시의 주지(主旨)이다. 여기서 『장자』의 시적 활용이 반드시 도가 사상의 수용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9) 黃中允, 『東溟集』 권4 「次愼上舍韻寄孝思二首」.

10) 신집(愼堧, 1586-?)은 1618년(광해군 10)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 때 합격해 생원이 되었다. 『戊午式年司馬榜目萬曆四十六年』, 한국학중앙연구원 DB 참조.

11) 민효사(閔孝思)는 황중윤이 충청도 서산(瑞山)의 유배지에서 지낼 때 교유한 인물이다. ‘효사(孝思)’는 그 자(字)이다. 「성연촌에 사는 민효사를 방문하다(訪閔孝思于聖淵村)」(『東溟集』 권4)라는 시에서, 민효사에 대해 “話憐天性豁, 交與世情殊”라고 읊었다.

12) “彼節者有間, 而刀刃者, 無厚. 以無厚, 入有間, 恢恢乎其於游刃, 必有餘地矣.”(강조는 인용자, 『莊子』 「養生主」)

13) “北冥有魚, 其名為鯢. 鯢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為鳥, 其名為鵬. 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莊子』 「逍遙遊」)

또다른 예를 거론하도록 한다. 먼저 『동명집』 권1에 실려 있는 「고향생각(鄉思)」의 제9·10구에 “벼슬길에서 와각(蝸角)을 다투지 말아야지 / 위험한 길에서 몇 번이나 호랑이 수염 뽑으려 했나(休從宦路爭蝸角, 幾向危途將虎鬚)”라는 시구가 보인다. 그 중 “蝸角”은 『장자』 잡편 「칙양(則陽)」에서 유래하는 말이다.¹⁴⁾ 다음으로 『동명집』 권2에 실려 있는 「상사(上舍) 조여빈(趙汝彬) 또한 해남에 유배되었는데, 그의 부친과 나의 선친은 사마시 동방(同榜)으로 세교가 절친했다. 나의 ‘공(公)’자 운에 차운해 19수를 보내왔기에 이에 그 수만큼 차운하여 답하다(上舍趙汝彬亦謫海南, 其大人與先人, 司馬同年, 世交甚切. 乃次余公字韻, 多至十九首, 茲依其數次答)」라는 긴 제목의 시를 보도록 한다. 이 시는 총 19수의 연작시이다. 그 제15수의 제5·6구에 “군신(君臣)이 서로를 알아보면 짐새¹⁵⁾가 끼어들기 어렵나니 / 범군(凡君)과 초왕(楚王)이 논한 존망(存亡)은 모두 날아간 기러기라네(君臣際會難媒鴻, 凡楚存亡總去鴻)”라는 시구가 보인다. 그 중 “凡楚存亡總去鴻”은 『장자』 외편 「전자방(田子方)」에 나오는 ‘범군과 초왕의 고사’¹⁶⁾를 활용한 표현이다. 두 경우 모두 『장자』의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시어를 확장하고, 벼슬살이의 어려움과 헛됨을 말하고 있다.

한편 황중윤이 17세기 초엽에 지은 한문소설 『천군기』에서도 『장자』를 인용한 구절이 발견된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신이 듣건대 월백은 당대에 대적할 자가 없으니, **물고기도 그를 보**

14) “有國於蝸之左角者曰‘觸氏’, 有國於蝸之右角者曰‘蠻氏’, 時相與爭地而戰, 伏尸數萬, 逐北旬有五日而後反.”(『莊子』 「則陽」) 참고로 황중윤은 ‘와각지쟁(蝸角之爭)’의 표현과 발상을 『천군기』에서도 썼다.

15) ‘짐새[鴻]’는 여기서 소인배를 의미한다.

16) 범군(凡君)과 초왕(楚王)이 마주 앉아 개인과 국가의 ‘존망(存亡)의 진위(眞僞)’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고사이다. “楚王與凡君坐, 少焉, 楚王左右曰: ‘凡亡者三’. 凡君曰: ‘凡之亡也, 不足以喪吾存. 夫<凡之亡也, 不足以喪吾存>, 則楚之存, 不足以存存. 由是觀之, 則凡未始亡而楚未始存也.”(『莊子』 「田子方」)

면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새도 그를 보면 하늘로 높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물고기와 새도 그를 두려워하거늘 하물며 사람이야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미 적들이 들이닥쳤으니 굳게 지키기가 결코 어려울 듯합니다. 제 생각에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¹⁷⁾

인용문은 『천군기』 제9회에서 욕생(慾生)이라는 반동인물이 외적(外敵) 월백(越白)과 대적하기 어려우니 성문(城門)을 열어줄 것을 천군에게 설득하며 하는 말이다. 그 중 강조 표시한 부분은 『장자(莊子)』 내편 「제물론(齊物論)」에서 유래하는 구절이다. 빼어난 미모의 모장(毛嫵)과 여희(麗姬)를 보고 사람들은 감탄했지만, 물고기와 새들은 달아나 버렸다는 고사가 「제물론」에 보이는데, 황중윤이 그 중 일부 표현을 취해 썼다. 월백은 본래 ‘미색(美色)’이 의인화된 인물이지만, 작중에서 표면적으로는 위풍당당한 적장(賊將)으로 그려져 있다. 그런데 이렇게 ‘모장과 여희의 고사’에서 유래하는 구절을 취해 씌으로써 월백이 본래 ‘미색’을 뜻하는 인물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외에도 『천군기』에는 『장자』의 표현을 활용한 구절이 더 보이는데,¹⁸⁾ 이를 통해 『천군기』의 세부 서사가 좀 더 흥미로워질 수 있었다.¹⁹⁾

요컨대 황중윤은 도가서인 『장자(莊子)』를 탐독하고, 그 어휘와 표현을 시를 짓거나 소설을 쓸 때 활용함으로써 문학어를 확장할 수 있었다.

17) “臣聞越白當代無敵，魚見之深入，鳥見之高飛，魚鳥猶畏，況於人乎？今既逼迫，決難固守，以愚所料，開門爲便。”(黃中允, 『天君紀』 제9회)

18) 다른 예로 『천군기』 제22회에 보이는 “廓清魯薄，自解邯鄲之圍”라는 구절은 『장자』 외편 「거협(胥篋)」의 “唇竭則齒寒，魯酒薄而邯鄲圍，聖人生而大盜起”를 활용한 표현이다.

19) 정태제(鄭泰齊)는 『천군기』를 변개한 『천군연의(天君衍義)』를 내놓았는데, 좀 더 투철한 유학자의 입장에서 『천군기』의 표현 중 『장자』와 같은 도가서에서 유래한 표현을 삭제했다. 그 결과 「천군연의」의 문체는 보수적이고 온건한 쪽으로 바뀌었으며, 흥미롭고 활달한 면이 줄어들게 되었다. 김수영, 『『天君紀』研究』, 120-130쪽 참조.

2) ‘신선(神仙)’의 문학적 활용과 상상력의 확대

다음으로 황중윤은 ‘신선(神仙)’에 관심을 갖고, 신선의 이미지와 모티프를 문학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상상력을 확대하기도 했다. 다음 시를 보자.

예악과 시서가 극곡(卻穀)과 같았거늘	禮樂詩書卻穀齊,
당시 한 칼에 경예(鯨鯢)를 베었지.	當時一刀斬鯨鯢.
얼굴은 용조(熊鳥)의 방술을 좇아 그 속에 머물고	顏從熊鳥方中駐,
이름은 마땅히 기린각에 적혀야 하리.	名合麒麟閣上題.
일찍 강호(江湖)에 은거해 벼슬을 알보더니	早向江湖輕紱冕,
비바람 타고 무지개로 화했네.	却乘風雨化虹霓.
본조(本朝)의 산하 이로부터 웅장해져	本朝從此山河壯,
천 년 뒤에도 웅위한 위용 우는 아이를 그치게 하리.	千載雄威可止啼.

인용문은 「곽 망우당 만시(挽郭忘憂堂)」의 전문이다. 황중윤이 41세 때인 1617년, 곽재우(郭再祐, 1552-1617)가 별세한 날에 뇌우가 갑자기 일고 자색 기운이 하늘로 솟아오른 일을 보고 감회가 있어 쓴 시이다. 시의 부기(附記)에 그런 사실이 밝혀져 있다. 이 시에서 황중윤은 ‘홍의 장군(紅衣將軍)’ 곽재우의 활약과 위용에 대해 찬탄하고, 임종한 날의 특이한 자연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 중 제3구의 “얼굴은 용조방(熊鳥)의 방술을 좇아 그 속에 머물고(顏從熊鳥方中駐)”라는 시구가 주목된다. 흥미롭게도 이 시구는 중국 명대(明代) 문인 장일규(蔣一葵)가 저술한 『요산당외기(堯山堂外紀)』에 실려 있는 왕세정(王世貞)의 다음 시구, “顏從熊鳥方中駐”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²⁰⁾ 이종묵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18세기 시인 박종선(朴宗善, 1759-1819)이 『요산당외기』의

20) “楚人陸生，嘗從軍得官，而善按摩，多戲術。王元美(‘원미’는 왕세정王世貞의 자字-인용자)贈詩曰：‘翩翩裘馬俠兒風，青眼人間計未窮。早歲散金收劍客，中年煊玉禮壺公。顏從熊鳥方中駐，尊向魚龍戲里空。日月任他雙轉轂，江湖隨意一飄蓬。’”(강조는 인용자, 蔣一葵, 『堯山堂外紀』 권99 ‘國朝’)

전고(典故)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낯선 시어를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²¹⁾ 이 점에서 황중윤의 시에서 확인되는 『요산당외기』의 수용은, 그보다 상당히 앞선 시기의 것으로서 주목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다시 본래의 논의로 돌아와, 도가와 관련해 주목되는 표현은 이 시구 중의 ‘웅조(熊鳥)’라는 말이다. 이는 ‘웅경조신(熊經鳥伸)’을 줄인 말로 ‘곰처럼 나무에 매달리고 새처럼 다리를 펴 장수를 도모하는 도가의 양생법’을 이르는데, 『장자』 외편 「각의(刻意)」에서 유래하는 말이다.²²⁾ 이처럼 이 시에서 황중윤은 객재우를 양생술을 익힌 ‘지상선(地上仙)’에 가깝게 그리고 있다. 객재우는 『복기조식진결(服氣調息眞訣)』이라는 단학(丹學) 관련 저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 단학과(丹學派)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²³⁾

그렇다면 황중윤은 동아시아 교양으로서의 도가 사상뿐만 아니라, 도가적 수련과 양생에도 관심을 두었던 것일까? 황중윤은 광해군대에 청나라와의 화친을 주장한 주화론자(主和論者)로 지목받아, 인조반정 이후 1623년(인조 1)부터 1631년(인조 9)까지 전라도 해남(海南)에 유배되었다. 그 무렵 쓴 시를 보면 황중윤이 정철(鄭澈)의 셋째 아들인 정진명(鄭振溟, 1567-?)과 절친하게 지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정진명은 도교에 경도되어 신선이 되기를 회구한 인물이다. 다음 시에서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

알겠노라 그대 단약(丹藥) 먹고 속세의 창자 씻어	知君服餌洗塵腸,
선산(仙山) 제일봉에 자취 감춘 줄.	晦迹仙山第一岡.
골짜기 가득한 흰 구름이 가는 길 봉쇄해	滿壑白雲封去路,
옥단(玉壇) 어딘가에 앉아 향 사르겠지.	玉壇何處坐燒香. ²⁴⁾

21) 이종목, 「菱洋 朴宗善 한시의 창작 방법과 미학」, 『대동문화연구』 99, 대동문화연구원, 2017, 327-330쪽.

22) “吹呬呼吸, 吐故納新, 熊經鳥伸, 爲壽而已矣. 此道引之士, 養形之人, 彭祖壽考者之所好也.”(『莊子』「刻意」)

23) 李能和, 『朝鮮道教史』, 서울: 한국학자료원, 2013, 334-336쪽 참조.

인용문은 「정자우(‘자우子羽’는 정진명의 자字-인용자)가 스스로 포일거사(抱一居士)라고 부르며 자못 방외의 학문을 좋아해 두륜산 남암(南庵)에 들어가 고승과 함께 노닐다가 나에게 절구를 부쳐왔기에 차운하여 보내다(鄭子羽字號抱一居士, 頗好方外之學, 入頭輪山南庵, 與高僧遊, 寄余絕句, 次送)」라는 시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정진명은 스스로 ‘포일거사(抱一居士)’라고 자호했다. ‘포일(抱一)’은 『도덕경(道德經)』의 다음 구절, “늘 거처하는 곳에서 지내며 ‘하나’를 껴안고서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載營魄抱一, 能無離乎)”에서 유래하는 말이다. 여기서 보듯 정진명은 내단(內丹)에 관심을 두었던 듯하다.

이런 추정은 「정자우가 ‘선(蟬)’자 운을 써서 거듭 압운해 나에게 주기에 차운하여 답하다(鄭子羽用蟬韻疊押贈余次答)」라는 시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이 시는 총9수의 연작시인데, 황중윤이 정진명에 대해 읊은 곳이 여럿 보인다. 그 중 제1수의 “적송자(赤松子)²⁵⁾의 신선 비결을 전수받았네(赤松仙訣却能傳)”라는 시구나, 제3수의 “솔잎 먹는 신선 방법 홀로 전함이 부럽네(松葉仙方羨獨傳)”라는 시구가 주목된다. 또한 이 시의 제6수에는 “자우가 매번 두륜산을 유람하고 또 늘 『도덕경』을 필사했다”²⁶⁾라는 부기가 달려 있어, 정진명의 도가적 취향이 거듭 확인된다.²⁷⁾

이처럼 황중윤은 정진명과 가깝게 지내면서 도가적 수련과 양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신선을 긍정적으로 여기게 되었던 듯하다. 그래서인

24) 黃中允, 『東溟集』 권2, 「鄭子羽字號抱一居士, 頗好方外之學, 入頭輪山南庵, 與高僧遊, 寄余絕句, 次送」.

25) ‘적송자(赤松子)’는 중국 고대 전설상의 선인(仙人)이다. 『史記』 권55 「留侯世家」 참조.

26) “子羽每遊頭輪山, 又常書『道德』.”(黃中允, 『東溟集』 권2 「鄭子羽用蟬韻疊押贈余次答」.)

27) 참고로 이 시의 제4수에는 “내가 여러 해 전 시관(試官)으로 있을 때 자우의 부(賦)를 뽑았다”는 부기(附記)가 달려 있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시기를 알 수 있다.

지 황중윤이 쓴 여러 편의 시에서 어떤 인물을 예찬할 때 신선에 빗댄 표현이 종종 보인다. 이를테면 「박 상사(上舍)의 집에 들르다. 2수(過朴上舍宅二首)」는 80년 동안 두어 칸 집에서 은거한 박 상사라는 인물을 읊은 시인데, “음주 좋아해 자주 술에 취하고 / 한가로이 사는 것이 곧 상선(上仙)일세(好飲頻中聖, 閑居是上仙)”²⁸⁾라는 구절 중 “上仙”이라는 말이 보인다. 또한 「주시회 만시(挽朱時晦)」는 주형(朱炯)이라는 인물을 애도한 시인데, “천하에 신선이 없음을 이제 알겠나니 / 오늘 임천(林泉)의 이 사람 잃어서지(始知天下無僊在, 今日林泉失此人)”²⁹⁾라는 구절 중 “僊”이라는 말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황중윤의 시 중에는 자신을 신선과 동류의 존재로 읊은 작품도 있다. 1631년 여름 무렵, 황중윤이 해남에서 충청도 서산(瑞山)으로 유배지를 옮기게 되어 정자우와 이별할 때 준 다음 시를 보자.

한 번 인간 세상에 떨어졌으니 이미 겁재(劫灰)라	一落人間已劫灰,
옥경(玉京)과 요포(瑤圃)를 꿈에서 서성이네.	玉京瑤圃夢徘徊.
그대 만 이천 봉우리 속으로 돌아가면	君歸萬二千峰裏,
뭇 신선들 나를 기다리는 걸 보게 되리라.	應見群仙待我來. ³⁰⁾

인용문은 「정자우와 이별하며 주다(留別鄭子羽)」라는 연작시의 제1수이다. 황중윤이 이 시에 쓴 부기(附記)에 따르면, 당시 정진명은 신선술을 배워 금강산으로 들어가고자 했다고 한다. 황중윤은 이 시에서 금강산을 꿈꾸는 정진명의 바람을 격려하는 한편, 강조 표시한 제4구에서 보듯 금강산의 뭇 신선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말을 짐짓 건네고 있다.

한편 신선 모티프를 활용한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한문소설 「옥황기」

28) 黃中允, 『東溟集』 권2 「過朴上舍宅二首」.

29) 黃中允, 『東溟集』 권2 「挽朱時晦炯」.

30) 黃中允, 『東溟集』 권3 「留別鄭子羽」. 제1구의 ‘劫灰’는 재앙을 뜻하는 불교 용어이다.

에서 발견된다. 『옥황기』는 고대(古代)로부터 명대(明代)까지의 중국 역사가 실은 ‘옥황상제(玉皇上帝)’의 권능이 행해진 결과라는 기발한 착상을 바탕으로 창작된 소설이다.³¹⁾ 이 작품에서는 중국 각 시대별 주요 역사적 사건들이 옥황상제의 권능과 관련해 재해석된다. 서사가 이러하다 보니 작품의 공간적 배경 또한 천상계(天上界), 제선국(梯仙國), 속계(俗界), 지부(地府)를 넘나든다. 또한 역대 제왕과 충신, 역적, 제가백가를 비롯한 사상이 등과 더불어 상원부인(上元夫人),³²⁾ 팔공(八公),³³⁾ 태음부인(太陰夫人)³⁴⁾ 같은 여러 신선과 안기생(安期生)³⁵⁾, 나공원(羅公遠)³⁶⁾ 같은 여러 도사(道士) 등이 작중 인물로 등장해 흥미로운 서사가 펼쳐진다.

무엇보다 『옥황기』의 끝부분에는 ‘황동명(黃東溟)’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동명’은 황중윤의 호이므로 작자 자신이 카메오처럼 나타난 셈이다. 그 대목을 보자.

그때 상제(上帝)가 세상을 다스린 지 오래되어 천조(天曹)의 일과 여러 진인(真人)의 언행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근래 황동명(黃東溟)이라는 이가 누설을 금하는 것이 어겨질까 봐 우선 그 대강을 추려 진관(眞官)에게 전(箋)을 올렸다.

엎드려 생각건대 상제께서는 선재(仙才)를 선발하실 때 미천한 사람

31) 김동협, 앞의 논문, 67-74쪽 참조.

32) ‘상원부인(上元夫人)’은 ‘상원(上元)’에 임명되어十方玉女의 명부를 관장하는 선녀이다.

33) ‘팔공(八公)’은 중국 한(漢)나라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의 식객이었는데, 신선이 된 뒤 유안을 인도해 승천하게 했다고 한다.

34) ‘태음부인(太陰夫人)’은 달에 사는 선녀를 말한다.

35) ‘안기생(安期生)’은 중국 진(秦)나라 때의 은사(隱士)이다. 진시황(秦始皇)이 안기생과 여러 날 이야기를 나누고 금은보화를 하사했으나 그대로 둔 채 봉래산으로 떠났다고 한다.

36) ‘나공원(羅公遠)’은 중국 당(唐)나라 때의 도사(道士)이다. 신이한 도술(道術)을 부린 일이 알려져 당나라 현종(玄宗)에게 천거되었다.

을 쓰는 데 힘쓰셨습니다. 진실로 적합한 사람이라면 비록 낮고 천하더라도 버리지 않으셨으며, 외국에 있다 해도 또한 발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광광(霍光)은 노비 출신의 미천한 사람인데도 북두(北斗)에 제수되어 하늘로 올랐으며, 김극기(金克己)는 외국 사람인데도 남산(南山)에 깃들여 살면서 신선이 되었습니다. 상제께서 널리 취하심을 이런 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천 년이나 늦게 태어나 운수가 기구하고 분수가 박하여 인간 세상에 파묻히고 속세의 먼지 속에 빠져 오래도록 육신(肉身)이 달리고 시체가 걸듯이 살면서 스스로 하루살이 같은 신세를 붙잡히 여긴 지가 이미 여러 날입니다. 오랫동안 길을 잃은 것을 항상 한스럽게 여기기만 하다가 근자에 비로소 깊이 살피, 정신을 눈처럼 깨끗이 하고 성령을 맑게 씻어냈습니다. 상평(向平)처럼 자식들의 혼사도 다 마쳤으며, 노오(盧敖)처럼 한가로운 노니는 데 뜻을 두었습니다. **간절하게 상제의 대궐을 생각하고 꿈속에서도 봉래산을 향하며, 시끄럽고 혼탁한 곳을 벗어나 넓고 확 트인 하늘에서 마음껏 노닐 수 있기를 바란 지가 이미 수십 년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듣자하니 원운(元胤)은 본래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태극이 깨우쳐 주었으며 오수(吳秀)는 본디 음란했으나(…)(이하 결缺-인용자)³⁷⁾

인용문에서 보듯 『옥황기』의 끝부분에 등장하는 ‘황동명’은 옥황상제에게 ‘선재(仙才)’로 발탁되기를 바라는 인물이다. 특히 인용문 중 강조 표시한 “시끄럽고 혼탁한 곳을 벗어나 넓고 확 트인 하늘에서 마음껏 노닐 수 있기를 바란”다는 구절에서 신선에 대한 희구가 보인다.³⁸⁾ 그렇지

37) “時上帝臨御, 已久, 几天曹事務, 諸眞言行, 不爲不多. 而近者, 有東溟姓黃者, 俱犯漏洩之禁, 姑撮其大概而錄之, 上箋於眞官曰: ‘伏以上帝簡選仙才, 務歟側陋, 苟其人焉, 則雖下賤而不棄, 在外國而亦拔. 故霍光奴下賤者也, 拜北斗而冲昇, 金克己外國人也, 栖南山而變化. 帝之廣取, 茲可想也. 今某生晚千載, 數奇分薄, 沉淪烟火, 汨沒塵埃, 長爲屍肉, 自憐蜉蝣者, 蓋有日矣. 常恨久迷, 近始深省, 澡雪精神, 澄汰性靈. 向平畢婚, 盧敖志遊, 誠懸帝關, 夢調蓬壺, 思蛻喧濁, 冀聘寥廓, 數十年于茲矣. 窃聞元胤本凡, 太極提醒, 吳秀素淫(이하 결缺)’”(黃中允, 『逸史』『玉皇紀』) 번역은 김인경·조지형 역, 『황중윤 한문소설』(서울: 새문사, 2014)을 참조하되 필자가 일부 수정했다.

만 이 작품이 허구적인 소설임을 고려할 때, 작중 인물로서의 ‘황동명’과 작가 ‘황중윤’을 동일시해서는 안 될 듯하다. 보다 중요한 점은, 황중윤이 신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지님으로써 『옥황기』에서 ‘신선’ 모티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전대의 한국소설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상상력을 펼쳐냈다는 사실이 아닌가 한다.

요컨대 황중윤은 ‘신선’ 이미지와 모티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학적 상상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해남 유배기 이후에 쓴 여러 한시와 한문소설 『옥황기』에서 그런 양상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여기에는 도교에 깊이 경도되었던 정진명과의 교유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된다.

3) 『황정경(黃庭經)』의 원용(援用)과 새로운 메시지의 발화

앞의 두 절에서는 황중윤 작품의 도가 수용 양상을 주로 언어적 국면과 상상력의 국면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이 절에서는 작품의 주제의식과 관련된 메시지의 국면에서 황중윤 작품이 도가적 사유를 어떻게 수용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본고의 머리말에서 언급했듯, 『『천군기』 연구』에서 고찰한 바 있다. 황중윤이 창작한 소설 『천군기』는 알레고리를 활용해 성리학적 심성론을 서사화한 ‘천군서사(天君敍事)’의 대표작이다.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뉘우침을 통해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고 깨어 있으라’, 즉 ‘경의 상태에 거하라[居敬]’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의식 자체는 대단히 ‘유교적’인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황중윤이 그러한 주제의식을 향해 서사를 구체적으로 펼쳐가는 과정에서 도교 경전인 『황정경(黃庭經)』

38) 참고로 『동명집』 편찬 과정에서 황중윤의 후손에 의해 결말부가 수정된 『옥황기』에는 이 부분이 없으며, “上箋於眞官曰” 이하의 전(箋) 부분을 모두 삭제한 채 작품을 종결시켜 놓았다. 김동협 역주, 『옥황기』, 서울: 박이정, 2017, 189쪽 참조.

의 발상과 표현을 특별히 원용(援用)했다는 사실이다. 『『천군기』 연구』에서 밝혔듯, 『천군기』 제11회 ‘천군이 친히 싸워 크게 패하다[天君親戰被大敗]’에 등장하는 ‘주폐(朱肺)’와 ‘주비(朱脾)’라는 등장인물은 각각 인간의 신체기관인 ‘폐’와 ‘비장’을 의인화한 인물들이다. 그 인물 설정의 기저에 『황정경』의 표현과 발상이 놓여 있다. 주폐와 주비보다 더 문제적인 인물은 제13회 ‘단원이 적에게 유세하여 화해를 구하다[丹元說賊求和解]’에 등장하는 ‘단원(丹元)’이라는 인물이다. 단원은 ‘심장의 신[心神]’을 이르는 말로, 『황정경』 ‘심신장(心神章)’의 발상과 표현을 원용해 창조된 인물이다.³⁹⁾ 단원은 『황정경』에 나오는 여러 신체기관의 신(神)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므로, ‘몸’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해할 수도 있다.⁴⁰⁾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물음을 던져 보고자 한다: 단원은 왜 하필 『천군기』 제13회에 등장할까? 필자는 그것이 도가적 사유에 기인한 서사적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물음을 풀기 위해 『황정경』 ‘심부장(心部章)’의 다음 대목을 보자.

심부(心部)의 궁은 봉우리를 머금은 연꽃이다. 아래에는 단원가(丹元家)라는 동자가 있으니 한열(寒熱)을 적절히 주관하고 영위(榮衛)⁴¹⁾를 조화롭게 한다. (...) 피를 조절하고 수명을 관리하며 몸이 시들지 않게 하고, 밖으로는 입과 혀에 응하고 옥화(玉華)를 토해 낸다. **목숨이 끊어 지려 할 때 그를 부르면 곧 소생하여 일어나고, 오랫동안 행하면 태하(太霞)에 오른다.**⁴²⁾

39) “心神丹元字守靈，肺神皓華字虛成，肝神龍煙字含明，翳鬱導煙主濁清，腎神玄冥字育嬰，脾神常在字魂停，膽神龍曜字威明。六府五臟神體精，皆在心內運天經，晝夜存之自長生。”(강조는 인용자, 『黃庭內景經』 ‘心神章’)

40) 이상 『천군기』와 『황정경』의 관련에 대한 논의는 김수영, 『『天君紀』研究』, 71-77쪽 참조.

41) ‘영(榮)’은 혈(血)의 순환을 말하고, ‘위(衛)’는 기(氣)의 순환을 말한다.

42) “心部之宮連含，下有童子丹元家，主適寒熱榮衛和。(...) 調血理命身不枯，外應口舌吐玉華，臨絕呼之亦登蘇，久久行之飛太霞。”(『黃庭內景經』 ‘心部章’)

‘단원가(丹元家)’는 곧 단원(丹元)이다. 이 인용문은 ‘심부(心部)’, 즉 심장에 머무는 심신(心神)인 단원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강조 표시한 대목이 주목된다. 『황정경』의 사유체계에서 단원은 “목숨이 끊어지려 할 때 그를 부르면 곧 소생하여 일어나”게 하는 힘을 지녔다. 그러므로 필자는 황중윤이 『황정경』에 서술되어 있는 단원의 이러한 역할과 특징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이를 『천군기』 제13회에서 적절히 원용했다고 생각한다. 『천군기』 제12회 ‘두 관원이 바람에 쓰러지듯 모두 적에게 복종하다[二官望風皆順賊]’를 보면, 월백(越白)과 환백(歡伯)이 전투에서 승승장구하자 천군의 신하인 이관(耳官)과 비관(鼻官)이 모두 항복한다. 이에 천군의 형세는 더욱 고립되고 약해지게 된다. 그리하여 제13회 초반부를 보면, 날마다 계속되는 월백과 환백의 공격으로 인해 나라가 패망 직전의 상황에 놓인다. 바로 그때 단원이 천군에게 나아와 적에게 화해를 청해 화(禍)를 조금이라도 늦추라고 아뢰니, 천군이 그 일을 단원에게 일임한다. 다음이 그 대목이다.

“(…) 신은 적현신주(赤縣神州)가 주상의 소유가 아니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주상을 위해 계책을 내건대 화해를 구하여 화(禍)를 늦추시옵소서.”

천군이 말했다.

“나는 정신이 혼미하여 이를 어찌할 수 없으니 경(卿)이 원하는 대로 해보라”⁴³⁾

인용문의 ‘적현신주(赤縣神州)’는 일반적으로 중국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천군의 나라’를 의미한다. 이처럼 『천군기』 제13회에서, 단원은 나라의 패망이 가까운 절체절명의 상황에 등장해 천군을 긴급한 위기에서 구하는데, 이는 『황정경』 ‘심부장(心部章)’의 발상을 서사적으

43) ““(…) 臣恐赤縣神州非大王有也。爲大王計，莫若乞解，少緩其禍。”天君曰：‘吾悟，不能進於是，卿其任意圖之!’”(黃中允, 『天君紀』 제13회).

로 원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단원 서사’에서 확인되는 『천군기』의 『황정경』 원용은, 작품의 주제의식과 관련된 메시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목된다. 황중윤은 ‘몸’을 대표하는 인물인 단원을 등장시킴으로써, 인간의 마음과 그 수양에 대한 사유는 추상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언제나 ‘몸’과 결부되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새로운 메시지를 발할 수 있었다. 전대의 어떤 천군서사와도 다르게 『천군기』에서 주폐, 주비, 단원 외에도 대장, 소장, 방광, 무릎, 허리, 뇌 등 다양한 신체기관을 대거 의인화해 등장시킨 목적이 바로 이에 있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천군기』에 보이는 ‘몸’과 ‘육망’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는 당대 조선의 성리학적 논의에서 잘 볼 수 없었던 것이다.⁴⁴⁾

요컨대 황중윤은 도교 경전인 『황정경』을 자세히 읽고, 이를 『천군기』 창작 시 원용(援用)했다. 특히 ‘단원’이라는 인물을 통해 성리학적 사유와 도교적 사유를 일정 정도 결합시키고 회통(會通)시킴으로써 소설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발할 수 있었다. 이런 양상은 도가가 황중윤 문학의 내질(內質)에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각별히 주목된다.

3. 도가 수용의 의의

이 장에서는 앞 장의 고찰 결과를 종합하면서, 좀 더 거시적인 문학사적 관점에서 황중윤 작품에 도가가 수용된 것이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황중윤이 『장자(莊子)』를 탐독하고 그 어휘와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문학어를 확장한 것은, 조선 중기 문풍(文風)의 변화와 그 흐름을 같이한다고 여겨진다. 조선 전기에는 주로 정희량(鄭希良), 남효온(南孝

44) 김수영, 『『天君紀』 研究』, 120-121쪽 참조.

溫), 홍유손(洪裕孫)과 같은 방외(方外)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장자』가 수용되었다. 그와 달리 조선 중기에는 장유(張維), 신흠(申欽), 유몽인(柳夢寅)과 같은 문단의 중심인물을 비롯한 많은 문인들이 『장자』를 읽고, 산문을 지을 때 즐겨 활용했다. 사상적으로는 『장자』를 이단으로 간주할 지라도 산문 창작을 위해 『장자』를 읽고 활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⁴⁵⁾ 이와 관련해, 이승수가 17세기 조선 지식인의 『장자』 수용을 크게 다섯 부류로 나눈 바 있어 참조된다.⁴⁶⁾ 황중윤은 도가적 사유와 별 관련이 없는 시에서도 『장자』의 표현을 종종 썼으므로, 그런 경우 “문장 학습의 차원에서 『장자』를 숙독했던 부류”⁴⁷⁾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그런 한편 우언(寓言)의 성격을 지닌 『천군기』를 창작하고, 거기서 『장자』의 어휘와 표현을 여러 차례 활용한 것은 “장자의 산문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변용했던 부류”⁴⁸⁾로 간주될 수 있을 듯하다.

다음으로 ‘신선’ 이미지와 모티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학적 상상력을 확대한 것이 갖는 의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한시에서 ‘신선 이미지’를 활용한 것은, 16세기 후반기와 17세기 전반기의 조선 문단에 당시풍(唐詩風)과 그와 연관된 악부시풍(樂府詩風)이 성행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를테면 이달(李達, 1539-1612), 성로(成輅, 1550-1615),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 이수광(李睟光, 1563-1628)과 같은 문인의 한시에서 그런 경향이 보인다.⁴⁹⁾ 또한 정철(鄭澈, 1536-1593)의 『관

45) 안세현, 앞의 논문, 440-446쪽 참조.

46) 이승수는 다섯 부류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첫째, 노장(老莊)을 이단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배척한 부류, 둘째, 문장 학습의 차원에서 『장자』를 숙독했던 부류, 셋째, 장자의 인식론을 수용하여 새로운 사상의 가능성을 모색했던 부류, 넷째, 『장자』를 학문의 대상으로 여겨 적극적으로 주석을 단 경우, 다섯째, 장자의 산문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변용했던 부류. 이승수, 앞의 논문, 313-318쪽 참조.

47) 위의 논문, 314쪽.

48) 위의 논문, 317쪽.

49) 김종서, 「蓀谷 李達의 樂府詩 受容과 美的 成就」, 『한국한문학연구』 44, 한국한문학회, 2009; 이종묵, 「성로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8, 한국한시학

동별곡』과 같은 가사 작품에서도 신선 취향이 확인된다.

한편 ‘서사문학’에서의 ‘신선 모티프’ 활용은 조선 중기의 문인들에게서 흔히 발견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황중윤이 신선 모티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옥황기』라는 소설을 창작한 것은 상당히 실험적인 시도로 생각된다.⁵⁰⁾ 『옥황기』 텍스트에 보이는 다양한 전고(典故)를 검토해 보면, 황중윤은 동아시아 신선서사의 고전에 해당되는 『열선전(列仙傳)』, 『포박자(抱朴子)』 등을 두루 읽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신선서사는 허균(許筠, 1569-1618)이 쓴 『장생전(蔣生傳)』, 『장산인전(張山人傳)』, 『남궁선생전(南宮先生傳)』에 의해 17세기 초엽 문학사에 그 자태를 뚜렷이 드러낸다. 그 뒤를 잇는 홍만중(洪萬鍾, 1643-1725)의 『해동이적(海東異蹟)』은 1666년, 즉 17세기 중반이 넘어서야 출현한다.⁵¹⁾ 이 점에서 황중윤이 『옥황기』를 창작한 일은, 이인설화(異人說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신선전 창작의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한 당시의 서사 상황과 연결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는 하나 황중윤이 통상의 전(傳)보다 훨씬 긴 중편에 가까운 편폭으로, 다수의 신선이 등장해 다채로운 사건이 전개되는 『옥황기』라는 소설을 17세기 초반에 창작한 일은 한국 서사문학사에서 새롭게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즉 허균의 신선전이 선풍(仙風)과 관련된 당대의 이인설화를 신선서사로 세련되게 발전시킨 의의가 있고, 홍만중의 『해동이적』이 당대의 신선서사를 체계적으로 집

회, 2003; 강민경, 「李睟光 遊仙詩의 幻像과 超越」, 『한국한문학연구』 26, 한국한문학회, 2000; 정민, 「16·7세기의 遊仙詩의 자료개관과 출현 동인」, 『도교문화연구』 4, 한국도교문화학회, 1990 참조.

50) 『옥황기』에 앞서 신선 모티프를 활용한 소설로는 늦어도 1610년대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운영전(雲英傳)」 정도가 확인된다. 하지만 『옥황기』와 비교해 「운영전」의 신선 모티프 활용은 상당히 제한적·암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전」에 대해서는 박희병, 「『운영전』 작자 고증」(『국문학연구』 42, 국문학회, 2020), 55-62쪽 참조.

51) 박희병, 「이인설화와 신선전」, 『韓國古典人物傳 研究』, 한길사, 1992, 187-213쪽 참조.

성한 의의가 있다면,⁵²⁾ 황중윤의 『옥황기』는 좀 더 긴 편폭의 소설 창작을 통해 당대 신선서사의 지평을 확대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황중윤이 『천군기』 창작 시 도교 경전인 『황정경』을 원용함으로써 성리학적 사유와 도교적 사유를 일정 정도 결합시키고 회통(會通)시킨 것은, 17세기 지식인 가운데 장유와 신흠의 경우에 비교될 만한 점이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주목했듯, 장유는 「설맹장논변(設孟莊論辨)」⁵³⁾에서 맹자와 장자의 논변을 함께 제시해, 도가적 관점에 입각해 맹자로 대표되는 성리학적 사유를 반성하는 목소리를 담았다.⁵⁴⁾ 또한 신흠은 「휘언(彙言)」⁵⁵⁾에서 보듯 노장 사상에 개방적이었으며, 다양한 사상을 용인함으로써 당대 성리학의 배타성이나 자기중심성을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구정록(求正錄)」의 다음 구절에 사상의 회통에 대한 신흠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유가에서는 ‘미발지중’이라 말하고, 도가에서는 ‘기의 어머니(氣之母)’라고 말하고, 선가에서는 ‘본래면목(本來面目)’이라고 말하지만 모두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⁵⁶⁾

그렇다면 ‘사상의 회통’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황중윤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 있었는가? 필자는 황중윤이 성리학적 사상을 견지하는 가운데 도가 사상을 비교적 유연하게 수용했다고 판단한다. 다만 유교와 도가를 똑같이 동등하게 인식하지는 않았으며, 유교를 보다 중심에 두면서 도가의 의의를 일정하게 인정했다고 본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의 하나로 『옥황기』에서 장자(莊子)에 대해 말한 다음 대목을 들 수 있다.

장몽(莊蒙: 장자-인용자) 등이 각기 자신의 글을 올리자 상제가 그것을 보고 말했다.

52) 위의 논문, 213쪽 참조.

53) 張維, 『谿谷集』 권3 「設孟莊論辨」.

54) 안세현, 앞의 논문, 462쪽 참조.

55) 申欽, 『象村集』 권43 「彙言」.

56) “儒者曰‘未發之中’, 老者曰‘氣之母’, 禪者曰‘本來面目’, 皆言心也.”(申欽, 『象村集』 권57 「求正錄」)

“너희들은 공구(孔丘: 공자-인용자)와 비교하면 이단이 됨을 면치 못하겠구나! 하지만 어린아이 정도는 가르칠 만하니 제선국(梯仙國)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거라.”⁵⁷⁾

소설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장자에 대해 “너희들은 공구(孔丘: 공자-인용자)와 비교하면 이단이 됨을 면치 못하겠구나!”라고 한 발언에서 장자보다 공자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한 황중윤의 사상적 입장을 엿볼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인용문의 발언을 단순히 도가 사상의 부정 내지 배척으로 읽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장자의 글에 대해 “어린아이 정도는 가르칠 만하니 제선국(梯仙國)⁵⁸⁾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거라”라고 말한 구절은 자세한 음미가 필요하니, 이 발언에는 ‘우언(寓言)’으로서의 『장자』의 의의를 일정하게 긍정하는 인식이 깃들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옥황기』에서 옥황상제가 노담(老聃), 즉 노자를 ‘부려천진백(浮黎天真伯)’이라는 천상계의 관직에 봉한 것도 눈여겨 볼 점이다. 무엇보다 『옥황기』는 작품 전체가 ‘신선서사’로서 도가에 대한 관심과 긍정이 그 창작의 기저에 놓여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황중윤의 도가에 대한 긍정은, 동시대의 장유나 신희의 경우에 비하면 덜 적극적인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도가 사상을 이단시하고 배척한 이식(李植)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개방적인 것이었다고 할 만하다.

이처럼 도가 사상의 수용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 입장을 취했던 황중윤이 『천군기』에서 『황정경』을 원용함으로써 당대 조선의 어떤 철학적

57) “莊蒙等各以其書上進, 帝覽之曰: ‘爾等比丘, 未免爲異端, 然孺子可教, 宜往梯仙國做工!’”(黃中允, 『逸史』 『玉皇紀』)

58) 『옥황기』의 ‘제선국(梯仙國)’은 천상계와 속계(俗界) 사이에 놓인 중간적 세계에 해당된다. 『옥황기』의 다음 대목이 참조된다: “옥황상제가 계신 곳에 오르는 자는 비록 인간 세상에서 이미 득도했다라도 다시 제선국(梯仙國)에서 1만 일 동안 수련을 해야 비로소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원(軒轅)과 유우(有虞)는 제선국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곧장 올라왔으니, 태어나면서부터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이다(凡昇於帝所者, 雖於人間已得道, 而更於梯仙國, 萬一修練, 方始登焉, 而軒轅有虞, 則不由梯仙國, 一舉直上者, 能生知也).”(黃中允, 『逸史』 『玉皇紀』)

논의에서도 볼 수 없었던 ‘몸’과 ‘육망’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⁵⁹⁾를 발할 수 있었던 것은, ‘소설’이라는 장르가 지닌 창조적 힘에 추동된 면도 있는 듯하다. 황중윤은 『천군기서(天君紀敍)』에서 유학자로서의 시각을 꽤 분명히 드러냈지만,⁶⁰⁾ 실제 『천군기』의 창작실천 과정에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도가적 표현과 발상을 구사했다. 이 흥미로운 ‘미적 모순’은 진지한 소설적 탐구의 결과가 아닐까 한다. 즉 ‘마음의 실체’에 대한 집요한 소설적 탐구 과정에서, 작가 자신의 의도를 넘어서서 성리학적 이념과 도가적 사유를 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메시지를 발하는 데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소설 『천군기』를 통해 당대 주류의 성리학적 심성론에 도가적 사유를 결합시킨 것은, 황중윤 문학의 의미있는 성과로 여겨진다.

59) 『천군기』는 ‘마음’은 추상적인 것만이 아니며 언제나 ‘몸’과 결부되어 작동하는 것임을 강조해 말한다. 또한 인간의 마음에서 ‘육망’은 제거할 수 없으므로 과도함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하되 적절히 용인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김수영, 『『天君紀』研究』, 120-121쪽 참조.

60) 황중윤은 57세에 쓴 『천군기서(天君紀敍)』에서, 성리학적 깨달음에 이르는 ‘문호(門戶)’에 들어가기로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내가 어릴 적에 독서에 뜻을 두었으나, 문호(門戶)를 알지 못했다. 한강(寒岡)과 대암(大庵) 두 선생의 문하에서 배운 뒤로 비록 문호가 있음을 알았으나, 자질이 노둔하여 취생몽사(醉生夢死)를 면하지 못했다. (...) 아! 처음에 문호를 알지 못했으면 그 만이거니와 이미 문호가 있음을 알고도 도리어 들어갈 바를 알지 못해 뒤로 달리고 반대로 가서 샅된 갈림길과 굽은 길 사이에서 낭패를 당했다. (...) 끝내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감히 스스로 능히 할 수 있으리라 말하지 못하겠다. 다만 이로부터 스스로 경계하고 힘써서 옛날의 문호에서 멀어지지 않았으면 한다(余少志於讀書而不知門戶, 自攝衣於寒岡大庵兩先生之門, 雖知有門戶, 而質鈍才魯, 未免醉夢. (...) 噫! 初不知門戶則已, 既知有門戶, 而反不知所入, 背馳叛去而狼狽於邪歧曲徑之間. (...) 而其所以終能恢復云者, 未敢自謂能然也. 蓋欲其從此自警自勉, 而不遠於舊門戶云爾.”(黃中允, 『逸史』 『天君紀敍』)

4.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황중윤 작품에서 도가의 수용이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의의는 무엇인지를 고찰했다. 황중윤 작품의 도가 수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양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황중윤은 도가 서인 『장자』를 탐독하고 그 어휘와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문학어를 확장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황중윤은 ‘신선’ 이미지와 모티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학적 상상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또한 황중윤은 도교 경전인 『황정경』을 정밀하게 읽고, 이를 『천군기』 창작 시 원용했다. 이를 통해 황중윤은 자신의 소설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황중윤의 도가 수용은 17세기 전반기 문학사의 전개 속에서 새롭게 평가될 만한 여러 가지 의의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황중윤 작품에 보이는 『장자』와 『황정경』의 영향을 주로 고찰했는데, 황중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도가서를 읽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옥황기』의 도가 수용 양상은 별도로 자세히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의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차후 더 심도 있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黃中允, 『東溟集』, 한국역대문집총서 303, 경인문화사.
- 黃中允, 『三皇演義』 『玉皇紀』,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 黃中允, 『逸史』 『天君紀』, 한국국학진흥원 소장(章回本 天君紀).
- 黃中允, 『逸史』 『天君紀敘』,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 黃中允, 『逸史』 『玉皇紀』,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 申欽, 『象村集』 권43 「彙言」, 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번역원.
- 李能和, 『朝鮮道教史』, 서울: 한국학자료원, 2013.
- 張維, 『谿谷集』 권3 「設孟莊論辨」, 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번역원.
- 김동협 역주, 『옥황기』, 서울: 박이정, 2017.
- 김인경·조지형 역, 『황중윤 한문소설』, 서울: 새문사, 2014.
- 최창록 역, 『黃庭經』, 서울: 동화문화사, 1993.
- 黃中允, 김정기 외 역, 『국역 동명선생문집 1·2』,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5.
- 『光海君日記』, 국사편찬위원회 DB.
- 『戊午式年司馬榜目萬曆四十六年』, 한국학중앙연구원 DB.
- 『莊子集釋』, 王孝魚 點校, 北京: 中華書局, 제2판, 2004.

2. 논저

- 강민경, 「李睟光 遊仙詩의 幻像과 超越」, 『한국한문학연구』 26, 한국한문학회, 2000, 271-294쪽.
- 김동협, 「黃中允 小說 研究」, 경북대 박사논문, 1990.

- 김수영, 『『天君紀』의 『三國志演義』의 援用 양상과 의미』, 『大東漢文學』 57, 대동한문학회, 2018, 241-277쪽.
- _____, 『『天君紀』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2011.
- 김용기, 『황중윤의 『四代紀』에 나타난 현실적 국가관-循環論에 의한 王朝交替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58, 한국어교육학회, 2017, 83-107쪽.
- _____, 『『옥황기』의 천명과 권선징악에 나타난 작가의식』, 『한국문학과 예술』 21,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7, 231-252쪽.
- 김종서, 『蓀谷 李達의 樂府詩 受容과 美的 成就』, 『한국한문학연구』 44, 한국한문학회, 2009, 51-84쪽.
- 박희병, 『『운영전』 작자 고증』, 『국문학연구』 42, 국문학회, 2020, 5-69쪽.
- _____, 『이인설화와 신선전』, 『韓國古典人物傳 研究』, 서울: 한길사, 1992.
- 신해진, 『黃中允의 政治的 立場과 『달천몽유록』』, 『국어국문학』 118, 국어국문학회, 1997, 209-223쪽.
- 안세현, 『조선중기 한문산문에서 『장자』 수용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45, 한국한문학회, 2010, 437-471쪽.
- 이성형, 『東溟 黃中允의 漢詩 研究-對明 使行詩를 中心으로』, 『한국문학 이론과비평』 23,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9, 35-67쪽.
- 이승수, 『조선조 지식인의 莊子 수용과 憤激 의식-三淵 金昌翁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15, 한국도교문화학회, 2001, 309-338쪽.
- 이종묵, 『菱洋 朴宗善 한시의 창작 방법과 미학』, 『대동문화연구』 99, 대동문화연구원, 2017, 313-344쪽.
- _____, 『성로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8, 한국한시학회, 2003, 5-30쪽.
- 정민, 『16·7세기의 遊仙詩의 자료개관과 출현 동인』, 『도교문화연구』 4,

한국도교문화학회, 1990, 99-131쪽.

정출현, 「탄금대 전투에 대한 기억과 두 편의 『달천몽유록』,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149-180쪽.

조안나, 「『사대기(四代紀)』의 표현특질과 주제의식」, 고려대 석사논문, 2014.

홍현성, 「동명(東溟) 황중윤(黃中允) 『사대기(四代紀)』 연구」, 『영주어문』 45, 영주어문학회, 2020, 5-31쪽.

<Abstract>

The acceptance of Taoism and its
significance in Hwang Joong-yoon's literary
works

Kim, Soo-Young*

In this paper, the acceptance of Taoism and its significance of Hwang Joong-yoon(黃中允, 1577-1648)'s literary work was examined. To this end, I looked through the poems that were published in Dongmyeongjip and novels *Cheongoongi* and *Okhwanggi*. As a result, the acceptance of Taoism in Hwang Joong-yoon's literary works was largely accomplished in three ways. First of all, Hwang Joong-yoon enjoyed reading the Taoist book, *Zhuangzi*, and was able to expand his poetry and pursue the vibrancy of his style by utilizing the vocabulary and expression. Next, Hwang Joong-yoon had a positive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the supernatural being(神仙). Accordingly, he was able to expand his imagination by actively utilizing the image of 'supernatural being' in the creation of poetry and novel. In addition, Hwang Joong-yoon carefully read the Taoist sutra, *Huangtingjing*(黃庭經), and used it when creating *Cheongoongi*. As is well known, *Cheongoongi* is a representative work of the Cheongoon Narrative(天君敘事), that contains the Neo-Confucian mind theory. However, it is significant that Taoist thinking had a major influence on this work. As such, by accepting the Taoism, Hwang

* University of Seoul.

Joong-yoon was able to develop new ideas in his novels beyond the framework of Confucianism, the mainstream thought of the time. Hwang Joong-yoon's acceptance of Taoism in literature has something to be evaluated anew in the 17th century literary history.

Key Words: Hwang Joong-yoon, Dongmyeongjip, Taoism, *Zhuangzi* (莊子), *Huangtingjing*(黃庭經), *Cheongoongi*, *Okhwanggi*

■ 논문접수 : 2021년 7월 31일

■ 심사완료 : 2021년 8월 18일

■ 게재확정 : 2021년 8월 19일